



BHA ALUMNI NETWORK

MYP Personal Project Insider Guide

Prepared by BHA Alumni Network Alumni

목차

00	들어가며	00
01	평가의 기준	00
02	고득점의 공통점	00
03	좋은 시작	00
04	과정 속의 선택	00
05	성찰의 기술	00
06	보고서의 역할	00
07	기록의 가치	00
08	Supervisor와의 협업	00
09	Draft의 중요성	00
10	마지막 점검	00

PART

00

들어가며

결과물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들어가며

Personal Project를 시작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경험한 동문들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Personal Project는 결과물 자체보다 목표 설정, 프로젝트 관리, 과정 기록, 그리고 성찰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학생들은 결과물보다 먼저 Assessment Criteria를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정하기 전에 평가 기준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Supervisor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Supervisor를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Personal Project는 결국 학생 본인의 프로젝트입니다. Supervisor는 프로젝트를 대신 진행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Process Journal 역시 처음부터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무엇을 수정했는지만 기록해 두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raft 제출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Draft는 완성본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기 위한 단계입니다.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제때 제출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Personal Project는 가장 대단한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관리하고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PART

01

평가의 기준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프로젝트가 달라집니다



평가의 기준

Personal Project,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Personal Project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제를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Assessment Criteria, 즉 평가 기준입니다.

Personal Project는 결과물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평가자는 결과물 자체보다 학생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화려한 아이디어를 찾기보다 먼저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결과물은 비교적 단순하더라도 목표 설정이 명확하고,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며,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한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프로젝트를 마친 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었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다."

Assessment Criteria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참고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평가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Personal Project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Alumni Tip

Assessment Criteria는 한 번 읽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주제 선정, Process Journal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을 프로젝트의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02

고득점의 공통점

높은 점수는 화려한 결과물보다 탄탄한 과정에서 나옵니다



고득점의 공통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그들은

-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고,
- 가장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평가자가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Personal Project는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했는가” 보다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결과물 제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ssessment Criteria를 살펴보면 계획, 과정, 성찰,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능력이 평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평가되는지 먼저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Criteria를 확인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과정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며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결국 Personal Project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결과물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맞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lumni Tip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면 생각보다 결과물은 평범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목표 설정, Process Journal, Reflection,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매우 탄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만 보지 말고 평가자가 무엇을 읽고 채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

03

좋은 시작

명확한 목표와 주제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시작

Criterion A: 좋은 목표와 주제 선정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Personal Project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결과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Criterion A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목표(Goal)와 성공 기준(Success Criteria)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처음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학생들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모호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와 프로젝트 목표를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공부하기, 코딩 배우기, 정치학 알아보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관심 분야**에 가깝습니다.

Personal Project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좋은 목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관심 분야 → 학습 → 결과물

주제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 몇 달 동안 꾸준히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멋져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프로젝트 후반까지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성공 기준은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가자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기 좋은 웹사이트 제작" 보다는
10명 이상의 사용자 피드백 수집, 5개 이상의 콘텐츠 제작, 모바일 환경 지원
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Alumni Tip

전공과 연결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ersonal Project는 Grade 10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이후 Activity List, Resume, Supplemental Essay, Interview 등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학 지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공과 연결된 Personal Project는 나중에 예상보다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되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04

과정 속의 선택

ATL Skills는 활동보다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과정 속의 선택

Criterion B: ATL Skills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Criterion B를 작성할 때 자신이 한 활동들을 나열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조사했다.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만들었다.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riterion B에서 평가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평가자는 학생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ATL Skills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뷰를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응답률이 낮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응답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입니다.

이메일 방식 대신 Google Form을 활용했는지, 대상자를 확대했는지, 질문 구성을 수정했는지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Criterion B에서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경험은 ATL Skills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Criterion B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Alumni Tip

ATL은 활동 기록이 아니라 의사결정 기록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Criterion B에서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05

성찰의 기술

좋은 Reflection은 경험보다 배움을 보여줍니다



성찰의 기술

Criterion C: Reflection은 일기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Reflection을 작성할 때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와 같은 문장은 Reflection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Criterion C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평가자는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Reflection에서는 단순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보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응답률이 낮았다. 처음에는 질문 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응답을 포기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이후 질문 수를 줄이고 설문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Reflection은 단순한 경험 기록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보여줍니다.

Personal Project에서 가장 의미 있는 Reflection은 프로젝트가 잘된 순간보다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 변경, 실패,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오히려 좋은 Reflection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Alumni Tip

“재미있었다”, “많이 배웠다”만으로는 좋은 Reflection이 되기 어렵습니다. Reflection을 작성할 때는 **문제 → 해결 → 배운 점**의 구조를 의식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경험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한 Reflection이 될 수 있습니다.

PART

06

보고서의 역할

최종 보고서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보고서의 역할

Criterion D: 최종 보고서는 프로젝트 설명서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한 활동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받았다”

“디자인을 수정했다”

와 같은 내용이 보고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자는 이미 결과물과 프로젝트 개요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Criterion D에서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왜 계획을 수정했는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사용자 피드백에서 정보 구조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메뉴 구조를 단순화했고, 이후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와 같은 설명이 훨씬 강한 보고서가 됩니다.

좋은 보고서는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문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과정을 분석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렸던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lumni Tip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활동은 충분히 설명하지만, 그 활동 뒤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자가 궁금한 것은 결과물 자체보다 그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PART

07

기록의 가치

꾸준한 Process Journal이 좋은 보고서의 시작입니다



기록의 가치

만약 단 하나의 조언만 남길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동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Process Journal을 꾸준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Process Journal을 프로젝트의 부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이 되면 Process Journal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rsonal Project의 대부분은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과 생각을 마지막에 한 번에 기억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왜 계획을 수정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Reflection과 Report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Process Journal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보고서 작성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Process Journal을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Process Journal을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길고 정교한 기록 한 번보다 짧은 기록 열 번이 훨씬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lumni Tip

많은 학생들이 Process Journal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 그냥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의 메모, 스크린샷, 사진, 피드백, 수정 기록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Process Journal은 완성된 글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흔적을 남겨두는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ART

08

Supervisor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은 Supervisor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Supervisor와의 협업

Supervisor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ersonal Project는 수버바이저의 Project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이 어떤 Supervisor를 배정받을지 걱정합니다. 관심 분야가 같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생님이여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조언해 주는 Supervisor를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Supervisor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Supervisor Meeting은 프로젝트를 대신 진행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록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대했던 Supervisor가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Personal Project의 평가 기준 어디에도 "어떤 Supervisor를 만났는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일정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Personal Project가 평가하려는 자기주도성(Self-Management)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Supervisor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먼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Alumni Tip

Supervisor Meeting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진행 상황과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보다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와 같은 방식이 훨씬 의미 있는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Supervisor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점수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학생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ART

09

Draft의 중요성

완벽한 Draft보다 제때 제출한 Draft가 더 가치 있습니다



Draft의 중요성

Draft는 무조건 제때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Draft 제출을 미루곤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raft는 원래 완성본이 아닙니다.

Draft의 목적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수정한 뒤 제출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ersonal Project는 제출 직전까지 수정과 개선이 반복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제출한 Draft와 Final Report가 완전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Draft 단계에서는 완벽함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한지, 성공 기준이 적절한지, Reflection이 충분한지, 평가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드백은 제출한 학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조언을 받을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Alumni Tip

마감일에 Draft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가능한 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할 기회는 남아 있지만, 놓쳐버린 피드백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Draft를 제출하는 것보다 제때 Draft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PART

10

마지막 점검

제출 전 작은 확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점검

Final Report 제출 전에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선생님, 친구, 선배, 부모님 누구든 괜찮습니다.

내용 자체를 평가받기보다는 문법, 오타, 문장 흐름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만 확인해도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직전에는 보고서만 확인하지 말고 Success Criteria, Reflection, Process Journal 기록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아쉬운 감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득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Personal Project를 경험한 동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물보다 Assessment Criteria를 먼저 읽습니다.

또한 Process Journal을 꾸준히 작성하고, Draft 제출을 미루지 않으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무엇보다 결과물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Reflection 역시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문제와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처음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더 크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범위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lumni Tip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반드시 가장 화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꾸준히 기록하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Personal Project는 결과물보다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yond MYP Personal Project

TIP

Personal Project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의외로 Personal Project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공 관련 프로젝트라면: Activities List Resume Supplemental Essay Why Major Essay Interview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Personal Project를 제출한 후 프로젝트를 끝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공과 연결된 프로젝트라면 Personal Project는 대학 지원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금융 교육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면, 이후 Activities List, Resume, Supplemental Essay, Why Major Essay, 그리고 대학 인터뷰에서까지 해당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은 단순히 특정 활동의 개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관심사를 발전시켜 왔는지에 주목합니다.

Personal Project는 Grade 10에서 끝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CAS, EE, 동아리 활동, 개인 연구 프로젝트, 대학 에세이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지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선택할 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가 2년 뒤에도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Personal Project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며

지금 이 가이드를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Personal Project는 아직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제를 정하게 되고, Process Journal을 작성하게 되고, 보고서를 수정하다가 밤을 보내게 되는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제출일이 다가옵니다.

Personal Project가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 하나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하나의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끝까지 완성해 냈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앞으로 DP를 준비할 때도,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도 분명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젠가 Personal Project Celebration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Branksome Hall Asia Alumni Network의 동문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Personal Project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DISCLAIMER

유의사항

- 본 가이드는 Branksome Hall Asia Alumni Network 동문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Branksome Hall Asia의 공식 자료가 아니며,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의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평가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Personal Project의 평가 기준, 제출 형식, 일정, 요구사항 및 기타 공식적인 내용은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와 최신 IB 공식 문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은 동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조언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Prepared by Alumni, for Students.